

경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 산업생산지수, 전년동월대비 13.9% 감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월 서울지역의 생산지수는 82.5로 전년동월대비 13.9% 감소 - 6월 서울 제조업부문 출하 감소, 재고 증가로 재고누증 단계로 해석됨 ○ 서울 대형소매점 전년동월대비 증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9.4%, 대형마트 4.9% 증가로 전체적으로 7.5% 증가 ○ 6월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.1% 상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활물가 전년동월대비 3.9%, 신선식품지수 전년동월대비 3.6% 각각 상승
고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3.4%로 나타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.4%로, 전년동월대비 1.3%p 증가 ○ 6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0.3% 증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.3% 증가하였으며, 전국대비(-1.0%) 4.5%p 차 -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.2% 상승하며 꾸준히 증가 ○ 서울의 고용률은 1.1%p 상승한 60.6% 전국(60.3%)대비 0.3%p 차 ○ 서울의 실업률은 1.2%p 상승한 4.4%로 전국(3.3%)대비 1.1%p 차
부동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6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 하락하며 전월대비 보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북지역(0.0%)은 광진구(0.4%), 은평구(0.3%)를 중심으로 상승하며 전월대비 보합 - 강남지역(-0.1%)은 구로구(0.2%), 금천구(0.1%)를 중심으로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 가며 전월대비 소폭 하락 ○ 6월 주택전세가격은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월대비 0.4% 상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북지역(0.3%)은 동대문구(0.8%), 은평구(0.7%)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승 - 강남지역(0.6%)은 금천구(1.2%), 강남구(0.9%)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
금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6월 기준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감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40조 8,335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5조 2,982억 원(0.97%) 감소 ○ 서울의 6월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월 중 신설법인 수는 2,046개로 전년동월대비 9.4%(175개) 증가하고 부모업체수는 40개로 전년동월대비 4.8%(2개) 감소 ○ 6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월 서울의 수출은 48.2억 달러로 수입은 107.0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4.9%, 22.4% 증가 -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,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

| 생 · 산 |

서울의 6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

■ 서울의 6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

- 서울의 6월 산업생산지수는 82.5(2005=100)로 전년동월대비 13.9% 감소
- 중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7.8%,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7.0% 감소
- 전년동월대비 의복 및 모피(-14.5%), 기계장비(-59.7%)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음향통신(-20.3%)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- 중공업 부문의 감소가 서울의 산업생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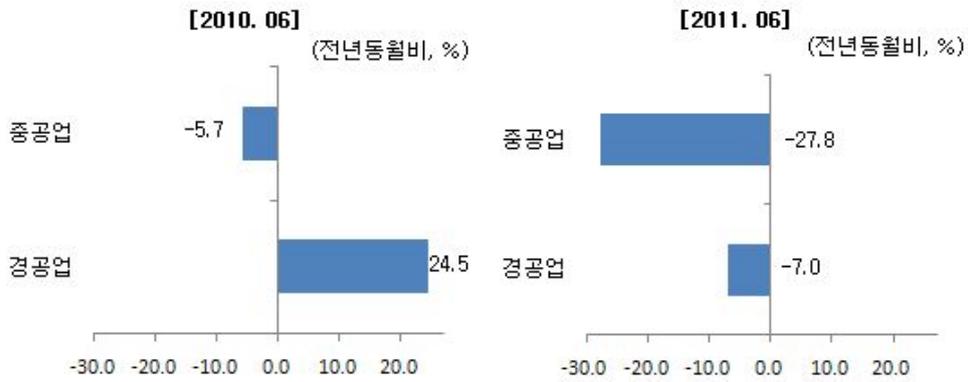
■ 전국의 6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전국의 6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.4% 증가, 전월대비로는 0.7% 증가
-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영상음향통신(-18.3%), 비금속광물(-5.6%) 등은 부진 하였으나, 반도체 및 부품(12.8%), 자동차(16.0%) 등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-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문·과학기술(5.6%), 부동산임대(-4.0%) 등에서 감소 하였으나 금융·보험(8.6%), 도매소매(4.7%), 출판·영상·방송(5.6%), 보건·사회복지(4.8%) 등이 증가하여 3.6% 증가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산업생산(중공업, 경공업) 증감률

| 출하 · 재고 순환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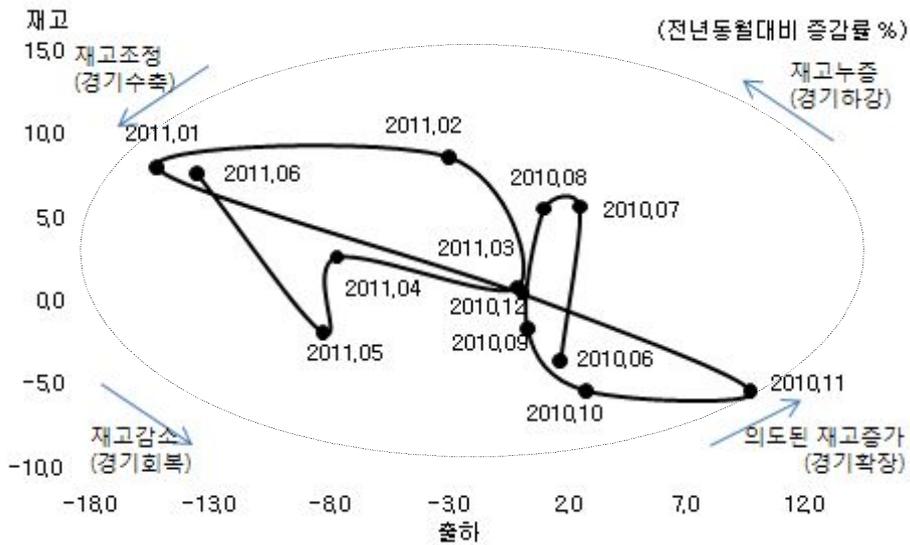
서울의 6월 제조업부문 재고누증 단계

■ 서울의 6월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, 재고 증가

- 서울의 6월 재고지수는 156.3(2005=100)로 전년동월대비 7.6% 감소
- 금속가공 등은 감소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음향통신 등 증가
- 출하 감소, 재고 증가하여 재고누증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(<Box> 참조)

<참고> 출하·재고 순환 상관표

경기수축기	경기회복기	경기확장기	경기하강기
출하↓	출하↑	출하↑	출하↓
재고↓	재고↓	재고↑	재고↑
재고조정	재고감소	의도된 재고증가	재고누증



<그림> 서울의 출하·재고 증감률 추이

| 소 · 비 |

서울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

■ 서울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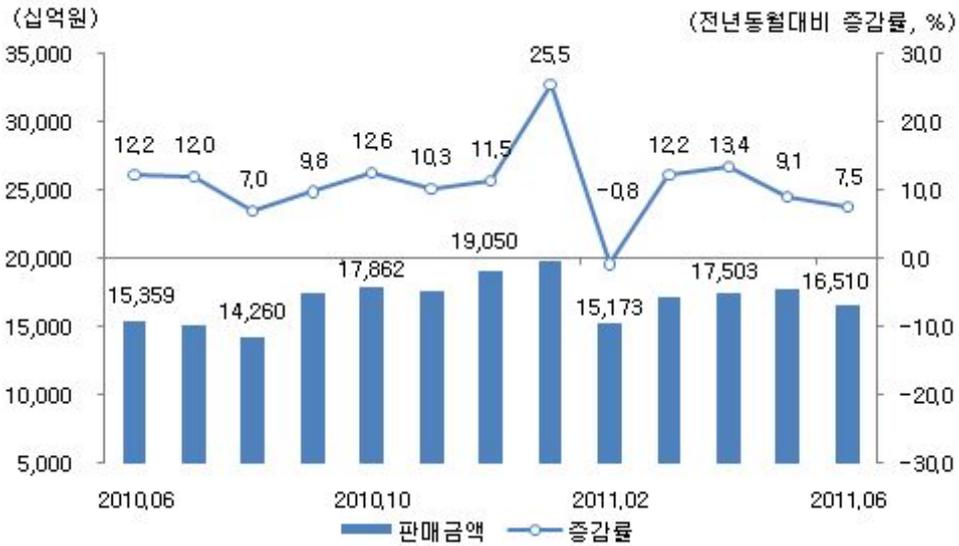
- 서울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6,510억으로 전년동월대비 7.5% 증가
-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9.4% 증가, 대형마트 4.9%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7.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- 백화점 정기바겐세일 등의 영향과 구제역 및 일본 대지진 등의 여파로 판매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

■ 서울의 6월 대형종합소매업의 판매액 중 패션용품이 1위

- 대형종합소매업의 판매액 1조6천150억원 중 패션용품 40.4%인 6천665억원, 식품이 29.6%인 4천886억원, 생활용품이 18.6%인 3천74억원을 판매
- 권역별로는 4권역(강남, 서초, 송파, 강동)이 36.8%인 6천72억원을 판매하였고, 다음으로 3권역(동작, 관악, 영등포, 금천, 구로, 양천, 강서), 1권역(종로, 중구, 용산, 마포, 서대문, 은평), 2권역(광진, 성동, 동대문, 중랑, 성북, 노원, 강북, 도봉) 순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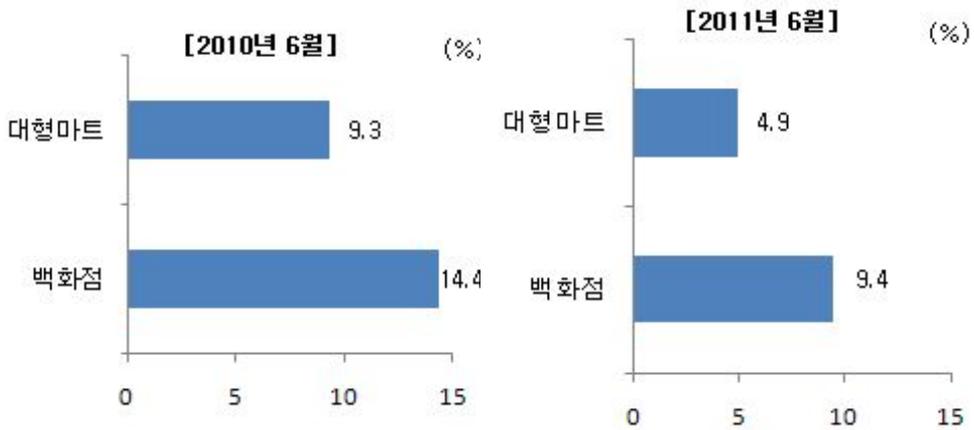
■ 전국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전국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4조 9,804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0.7% 증가
-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0.2% 증가, 대형마트는 2.0% 증가
- 유형별로는 컴퓨터·통신기기, 가전제품, 승용차 등의 내구재가 14.9% , 오락, 의복 등의 준내구재 4.6% 증가, 식료품,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0.4% 감소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

| 물 · 가 |

서울의 6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

■ 서울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

- 서울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9.6(2005년=100)로 전월대비 0.2%, 전년동월대비 4.1% 각각 상승
- 상품부문은 전년동월대비 6.4% 상승하였으며 그 중 농축수산물은 9.2% 상승, 서비스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.8% 상승하였으며 그 중 집세는 4.3%, 공공서비스 1.4%, 개인 서비스 2.9% 각각 상승

■ 서울의 6월 전년동월대비 생활물가지수, 신선식품지수 각각 상승

-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.2%, 전년동월대비 3.9% 각각 상승
- 생선류, 채소류,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3.6% 하락, 전년동월대비 4.7%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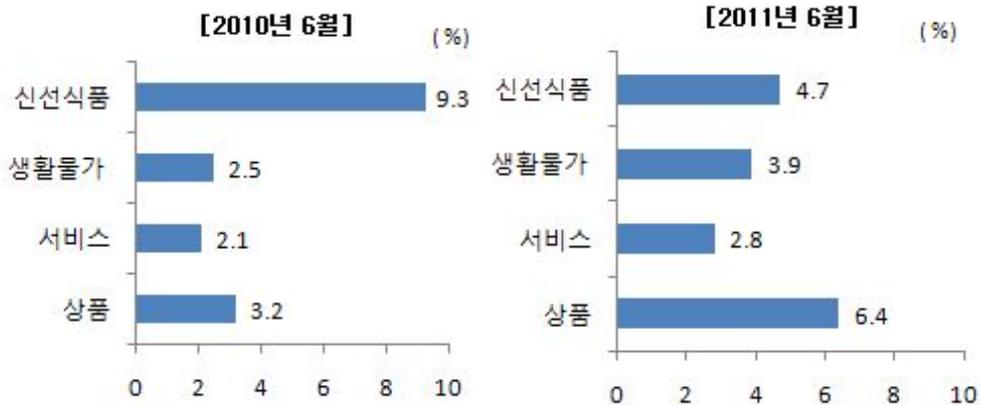
■ 전국 6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

- 전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.6(2005년=100)로 전월대비 1.2% 상승, 전년동월대 비로는 4.4% 상승하여 2011년 6개월 연속 4.0% 상승
-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보합, 전년동월대비 4.3% 상승,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3.0% 하락, 전년동월대비 4.7% 상승
- 16개 광역시도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, 서울, 부산 등 12개 시도는 0.1~0.3%씩 상승하였고, 대구와 대전은 변동이 없었으며, 충북과 제주도는 0.1%씩 하락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 (2005=100)

<그림>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



<그림> 서울의 소비자 물가 동향

■ 서울의 6월 배추, 양파, 파 등 채소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 가격 상승

- 소비자들의 생활필수 품목 중 신선식품의 전월대비 가격동향은 채소류의 경우 평균 36.27%, 양곡과 수산물의 경우 평균 0.32% 각각 하락
- 청과류 중 멸치 0.3%, 마늘 0.1% 각각 상승, 양파 3.6%, 파는 6.4%, 배추 160.2% , 무는 11.3% 각각 하락
- 수산물의 경우 고등어는 보합이었으며 멸치는 0.3%, 양곡류인 쌀은 0.7%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

(단위:전월대비, 원, %)

품목	 돼지고기	 쌀	 멸치
가격	5,472원	46,083원	2,378원
전월비	5.8%	0.7%	0.3%
품목	 마늘	 고등어	 배추
가격	6,730원	4,500원	1,076원
전월비	0.1%	0.0%	-160.2%

주 : 멸치(건멸치), 고등어(중품), 배추(가을(상품), 고랭지(상품), 봄(상품), 월동(상품)),마늘(깐마늘(상품)), 돼지고기(박피 암) 기준,

자료: 농수산물유통공사, 축산물품질평가원

<그림> 서울시 신선식품 중 상위 6개

| 경 · 제 · 활 · 동 · 인 · 구 |

서울의 6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

■ 서울의 6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

- 서울의 6월 15세 이상 인구는 8,41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천명(0.3%)이 증가, 경제활동인구는 5,33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4천명(2.4%)이 증가
-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3,07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8천명(-3.1%)이 감소
- 경제활동참가율은 63.4%로 전년동월대비 1.3%p 상승

■ 전국의 6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

- 6월 15세이상인구는 41,03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0천명(1.1%) 증가, 경경제활동인구는 25,59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4천명(1.7%) 증가
- 경제활동참가율은 62.4%로 전년동월대비 0.4%p 상승,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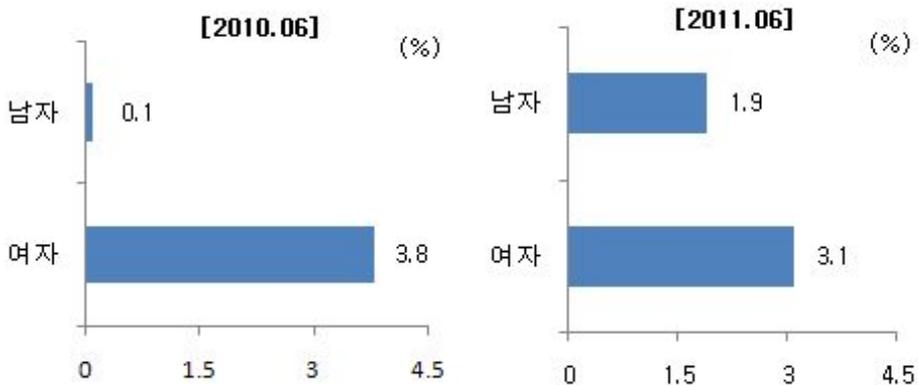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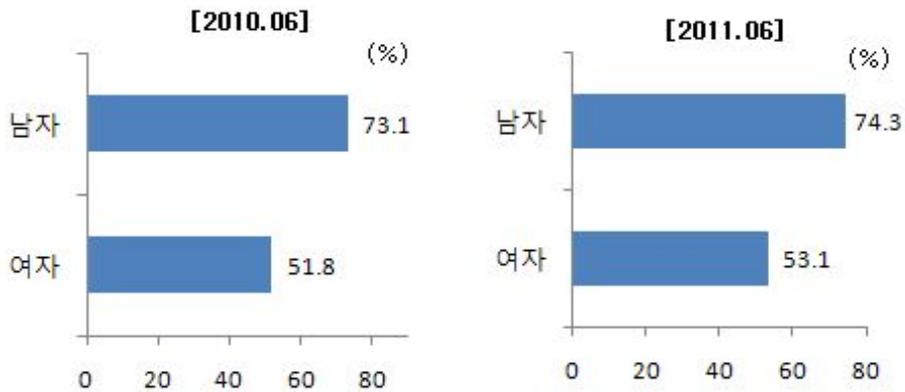
<그림>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추이

■ 서울의 6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

-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, 남자는 3,031천명, 여자는 2,30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.9%, 여자는 3.1% 각각 증가
- 경제활동 참가율의 경우 남자는 74.3%, 여자는 53.1%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.2%p, 여자는 1.3%p로 각각 증가



<그림> 서울 성별 경제활동 인구 증감률



<그림> 서울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

| 취·업·자 |

서울의 6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

■ 서울의 6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서울의 6월 취업자는 5,09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0천명(2.2%)이 증가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2,884천명, 여자는 2,21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56천명(2.0%), 여자는 54천명(2.5%)이 각각 증가
- 서울과(2.2%) 전국(1.9%)의 취업자 수는 0.3%p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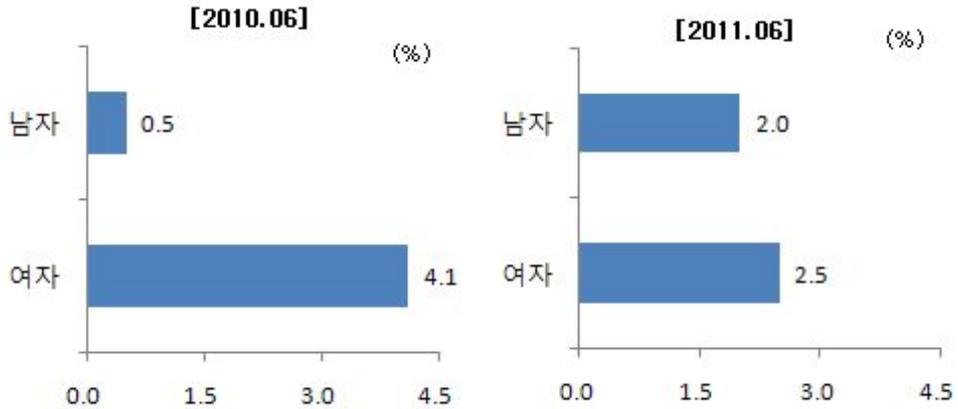
■ 전국의 6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전국의 6월 취업자는 24,75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2천명(1.9%) 증가
-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,33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5천명(1.9%) 증가하였고, 여자는 10,417천명으로 207천명(2.0%) 증가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



〈그림〉 서울의 성별 취업자 증감률

■ 서울의 6월 청년층(15세~29세),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수 증가

-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.3% 증가, 전국대비(-1.0%) 4.5%p 차이를 보임
-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.2%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이어감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(15세~29세)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고령층 취업자(60세이상) 추이

■ 산업별로 농림어업, 건설업 등은 증가, 제조업은 감소

-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2천명(28.6%)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 66천명(3.4%), 도소매·음식숙박업 35천명(2.7%), 전가운수·통신·금융업 18천명(2.2%)이 각각 증가
- 제조업 10천명(-1.9%), 건설업 0.4천명(-0.1%)이 각각 감소

■ 직업별로 농림어업숙련종사자, 사무종사자 등은 증가

- 직업별로 보면,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천명(22.4%), 사무종사자 96천명(11.0%), 서비스·판매종사자 6천명(0.5%), 전문·기술·행정관리자 6천명(0.4%)이 각각 증가
- 반면, 기능·기계조작·조립·단순종사자 1천명(0.0%)은 감소

■ 종사상지위별로 비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감소,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8천명(-0.8%)이 감소하였으나, 무급가족종사자는 2천명(0.8%)이 증가
-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150천명(7.1%)이 증가하였으나, 임시근로자는 34천명(-2.7%), 일용근로자는 0.3천명(-0.1%)이 각각 감소

| 고 · 용 · 률 · 및 · 실 · 업 · 률 |

서울의 6월 고용률 및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

■ 서울의 6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상승

- 서울의 6월 고용률은 60.6%로 전년동월대비 1.1%p 상승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70.7%, 여자는 51.1%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.2%p, 1.1%p 상승
-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과 0.3%p 차이

■ 서울의 6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상승

- 서울의 6월 실업자는 23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천명(6.7%)이 증가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147천명, 여자는 8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.1천명(-0.1%)이 감소하였으나, 여자는 15천명(20.3%) 증가
- 실업률은 4.4%로 전년동월대비 0.2%p 상승, 전국대비(3.3%) 1.1%p 차이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4.9%, 여자는 3.9%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동일하였고, 여자는 0.6%p 상승



〈그림〉 서울 실업률, 고용률 추이

| 주 · 택 · 매 · 매 · 가 · 격 |

서울의 6월 주택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감소

■ 서울의 6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보합

-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은 0.0%로 전월과 같은 수준인 보합세
- 주택유형별 매매가격은 아파트는 0.1%로 전월대비 하락한 가운데,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각각 0.2%, 0.0%로 상승세 둔화

■ 전국의 6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

-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의 전월대비 증감률은 0.5%로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,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공급물량 부족과 매수심리 호전 등으로 각각 0.9%로 전월대비 상승폭 축소



자료 : 국민은행연구소

〈그림〉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

- **강북지역은 광진구와 은평구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노원구와 마포구는 하락하는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내며 전월대비 보합**
 - 광진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의 매매거래는 활발하지 못한 가운데 소형, 저가 연립주택과 노후화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.4% 소폭 상승
 - 노원구는 중·소형 주택도 거래가 매우 한산한 가운데 매물이 적체되며 전월대비 0.2% 하락
 - 마포구는 취득세, 양도세 완화 등 정부의 거래활성화 대책으로 매도물량이 증가하나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매수수요 부족으로 전월대비 0.1% 소폭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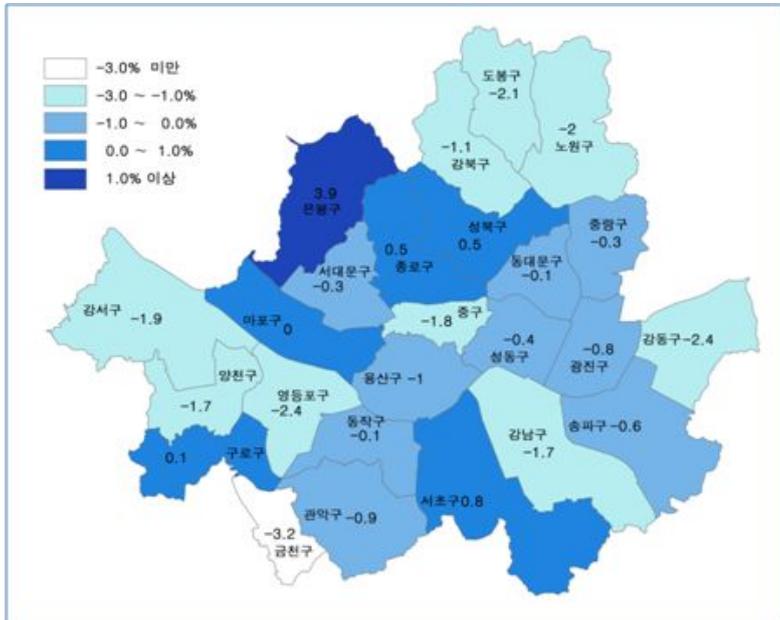
- **강남지역은 상대적으로 저가 연립주택이 많은 구로구와 금천구를 중심으로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월대비 0.1% 소폭 하락**
 - 구로구는 역세권 소형을 중심으로 직장인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가 유입되면서 전월대비 0.2% 상승
 - 강동구는 재건축 단지가 약세를 보이고 고덕동, 강일동에 보금자리가 지정되면서 매수 심리가 약화되며 전월대비 0.4% 하락

- **서울의 6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소폭 하락**
 - 서울의 6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,797.67만원으로 전월(1,802.22만원)대비 소폭 하락하였고 4개월간 하락세 지속
 -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(3,272만원), 서초구(2,881만원), 용산구(2,552만원), 송파구(2,390만원), 양천구(1,930만원), 광진구(1,870만원), 강동구(1,835만원) 등의 순으로 나타남
 -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(995만원), 도봉구(1,099만원), 중랑구(1,131만원), 강북구(1,136만원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자료 : 부동산 114

<그림>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



자료 : 부동산 114

<그림> 아파트 매매가격 전월대비 증감률

| 주 · 택 · 전 · 세 · 가 · 격 |

서울의 6월 주택전세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서울의 6월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상승
 -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전세가격은 각각 전월대비 0.4%로 상승세를 지속
 - 주택유형별 전세가격은 아파트가 전월대비 0.5% 상승한 가운데,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각각 0.4%로 상승세 둔화
- 전국의 6월 주택전세가격은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전월대비 상승
 -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.7%로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광역시와 기타지방도 전월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각각 0.8%, 0.7% 상승



자료 : 국민은행연구소

〈그림〉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

- **강북지역은 동대문구, 은평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.3% 상승하며 지속적인 상승세**
 - 동대문구는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의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전월대비 0.8% 상승
 - 은평구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과 중·소형 전세물량 부족으로 아파트에서 연립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.7% 상승

- **강남지역은 금천구, 강남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되어 0.6% 상승**
 - 금천구는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혼부부, 직장인 등의 수요는 꾸준한데 비해 중·소형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전월대비 1.2% 상승
 - 강남구는 공급물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비해 만기를 앞둔 전세입자의 재수요와 여름방학대비 학군수요로 전월대비 0.9% 상승
 - 관악구는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선호로 전세물량이 부족해진 가운데, 상대적으로 전세가격이 높지 않아 유입되는 수요증가로 전월대비 0.9%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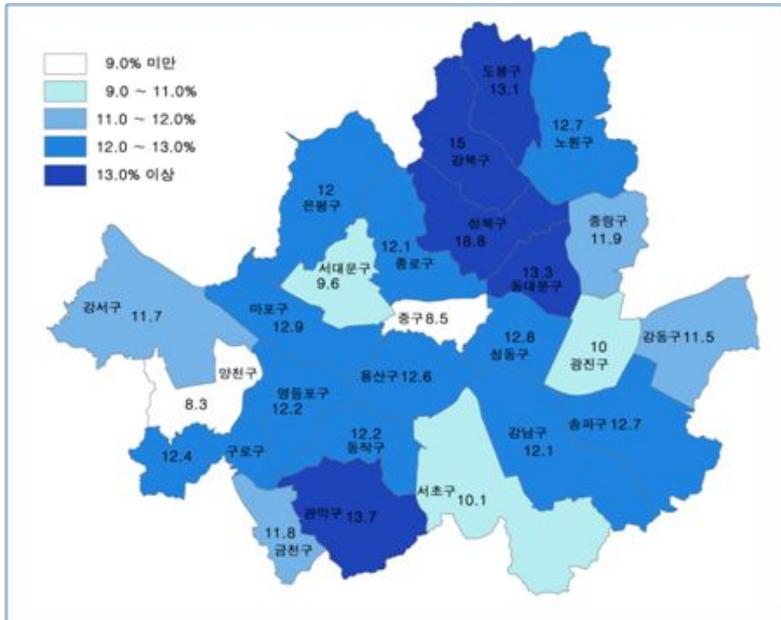
- **서울의 6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**
 - 서울의 6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평균 795.66만원으로 전월(788.61만원)대비 상승
 -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(1,244만원), 서초구(1,137만원), 송파구(963만원), 용산구(930만원), 광진구(877만원), 종로구(851만원), 중구(846만원), 양천구(840만원), 마포구(817만원) 등의 순으로 나타남
 -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(516만원), 도봉구(553만원), 강북구(558만원), 중랑구(589만원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- **서울의 6월 아파트 전세가격/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소폭 상승**
 - 6월 중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/매매가격 비율은 47.4%로 전월(47.0%)보다 0.4%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
 -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/매매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58.5%보다 11.1%p 낮은 수준이며,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(12.0%p)보다 소폭 하락
 -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9.8%, 강남 45.4%로 강북이 강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, 강남·북간 전세가격/매매가격 비율은 상승세 지속



자료 : 부동산 114

<그림>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



자료 : 부동산 114

<그림>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증감률

| 시 · 중 · 자 · 금 · 사 · 정 |

서울의 6월 전체 대출금잔액 전년동월대비 증가

■ 6월 중 국고채 전월대비 소폭 상승

- 6월 중 국고채(3년)금리는 4월 하순 이후의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단기급락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, 기준금리 인상, 그리스 재정위기 및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완화 등에 반등하여 전월대비 0.01% 상승

■ 회사채 금리 전월대비 소폭 하락, CD 금리는 상승세 지속

- 6월 중 회사채(3년) 금리는 전월대비 0.04%p 하락하여 6월 중 4.40%로 마감
- 6월 중 CD(91일)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, MMF 감소 등의 영향으로 0.07%p 상승하여 6월 중 3.53%로 마감

■ 장 · 단기 금리차는 전월대비 감소세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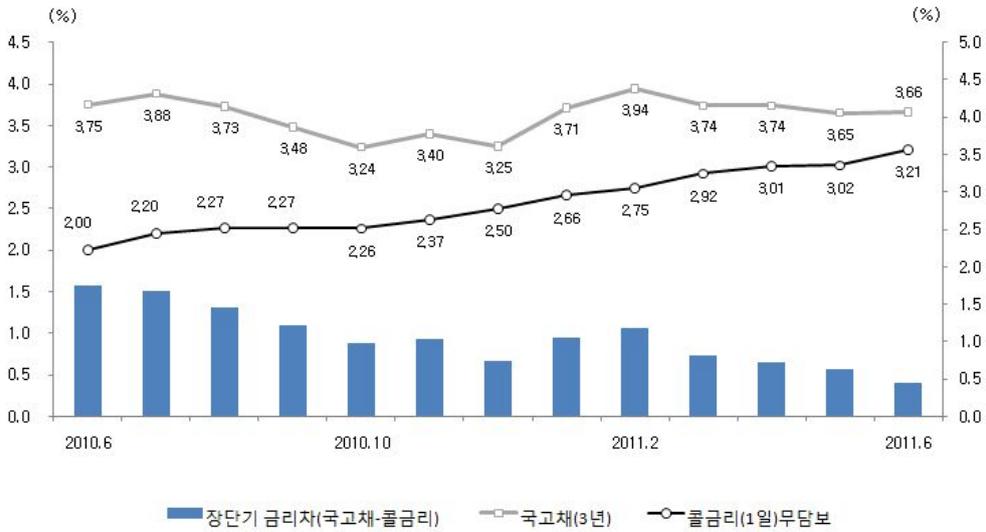
- 6월 중 장 · 단기 금리차는 국고채(장기) 금리의 소폭 상승과 CD(단기)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세에 힘입어 전월대비 0.18%p 하락하여 0.43%로 마감

■ KOSPI 지수 전월대비 하락

- 6월 중 코스피는 조정을 받으면서 2,020(6월 20일)까지 하락하였다가 하순 이후 그리스 재정위기 우려 완화, 저가매수자금 유입 등으로 소폭 반등하여 6월 중 2,074.6p로 마감

■ 6월 중 원/달러 환율은 하락세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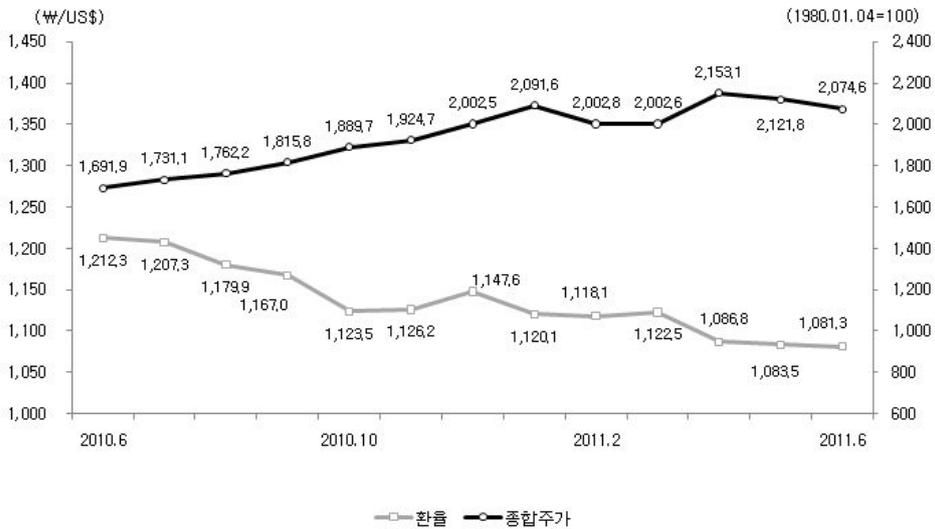
- 6월 중 원/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-2.3원 소폭 하락하여 6월 중으로 1,081.3원으로 마감



주 : 기간 중 평균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주요 금리추이



주 : 기간 중 평균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

■ 6월 기준 서울지역 전체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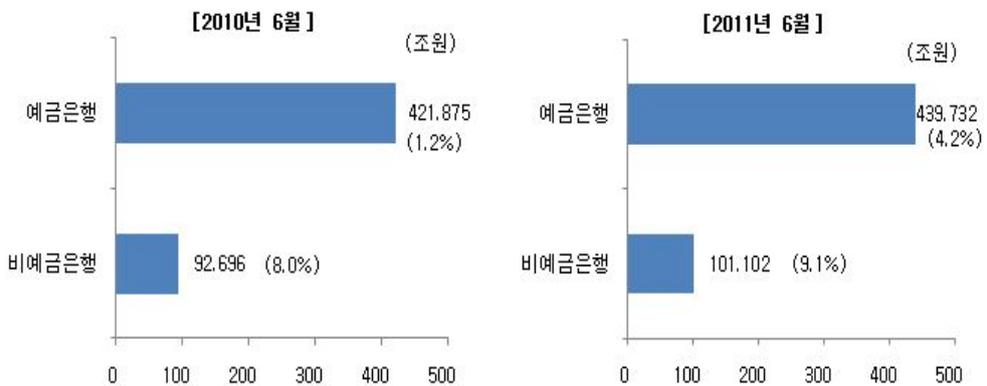
- 6월 중 서울지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40조 8,335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5조 2,982억원(0.97%) 감소
- 6월 중 전국의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,364조 6,820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 862억원(0.06%) 감소



주 : 말잔 금액,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(한국수출입은행, 종합금융회사, 신탁회사, 상호저축은행, 상호금융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)의 총합

자료 :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


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자료 :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

■ 5월 중 은행 가계대출 전월대비 감소

- 5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172조 187억원으로 전월대비 822억원(0.5%) 증가하였고 그 중 주택대출은 111조 619억원(64.8%)으로 전년동월대비 4.6% 증가



주 : 말잔 금액,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
 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시 주택대출의 추이

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시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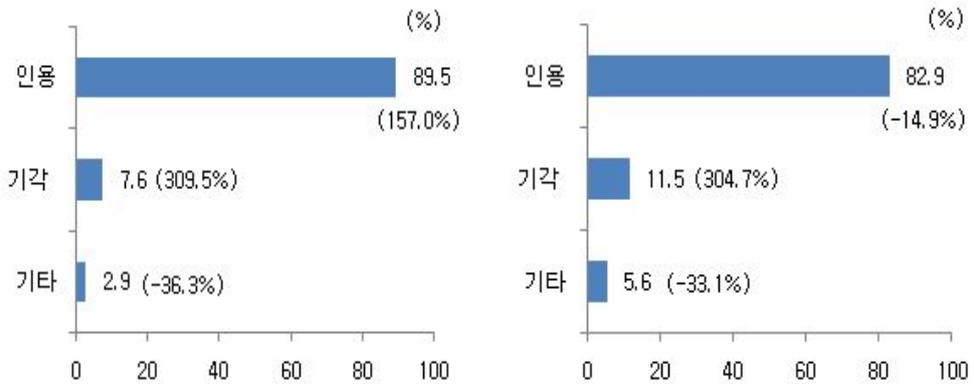
■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증가

- 6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1,231명으로 전월대비 3.5%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대비 25.3% 감소
-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은 7.6%로 전월대비 37.6% 증가하였고 면책 기각률은 11.5%로 전월대비 176.2% 증가



자료 : 대법원

<그림>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



주 : 인용은 정당하다고 인정, 기각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,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자료 : 대법원

<그림> 6월 개인파산 선고전 처리현황

<그림> 6월 면책 처리현황

| 신 · 설 · 및 · 부 · 도 · 법 · 인 · 동 · 향 |

서울의 6월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서울의 6월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증가,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신설증가
 - 6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,046개로 전월대비 11.0%(202개), 전년동월대비 9.4% (175개) 증가
 -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전월대비 34.9%(73개), 9.7%(144개) 증가하였고 건설 및 설비업은 전월대비 12.1%(16개) 감소
- 서울의 6월 부도업체 수 전월대비 감소,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부도감소
 - 6월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40개로 전월대비 24.5%(13개), 전년동월대비 4.8%(2개) 감소
 -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 및 설비업은 각각 전월대비 6.7%(1개), 100.0%(5개)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59.4%(19개)로 크게 감소



자료 : 중소기업청

<그림>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



자료 : 중소기업청

<그림>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


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<그림>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


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<그림>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

■ 서울의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동일

- 6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.04%로 전월보다 상승하였고 서울의 신설법인/부도법인 배율은 51.2배로 전월(34.8배)보다 상승



자료 : 중소기업청,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/부도법인 배율 동향

| 신 · 용 · 보 · 증 · 동 · 향 |

서울의 6월 신용보증 공급금액 전년동월대비 감소

■ 보증지원 건수 및 금액 증가

-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6월 중 3,647건, 117,500백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 27.4%, 보증금액 36.0%,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6.6% 증가
- 한편 전년 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 및 금액은 각각 50.5%, 11.5% 감소하였고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78.9% 증가



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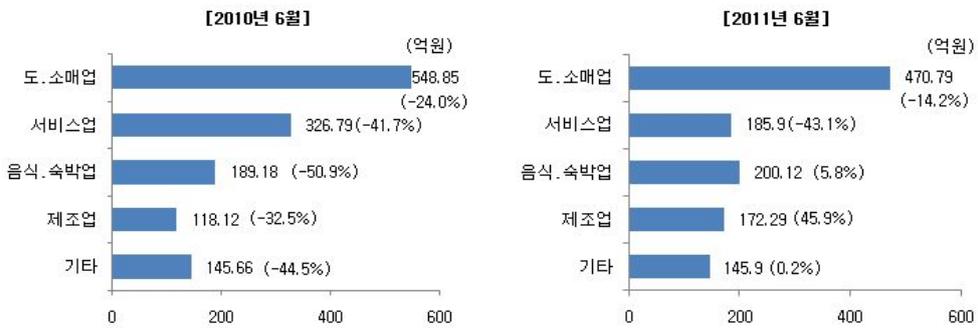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

■ 제조업지원 건수 및 금액 비중 상승

- 6월 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14.7%로 전월(10.9%)대비 3.8%p 증가한 반면, 음식숙박업종에 대한 지원은 17.0%로 전월(18.0%)대비 1.0%p 감소
-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9.5%로 전월(8.1%)대비 1.4%p 증가하였으며, 서비스업종은 21.6%로 전월(22.7%)대비 1.1%p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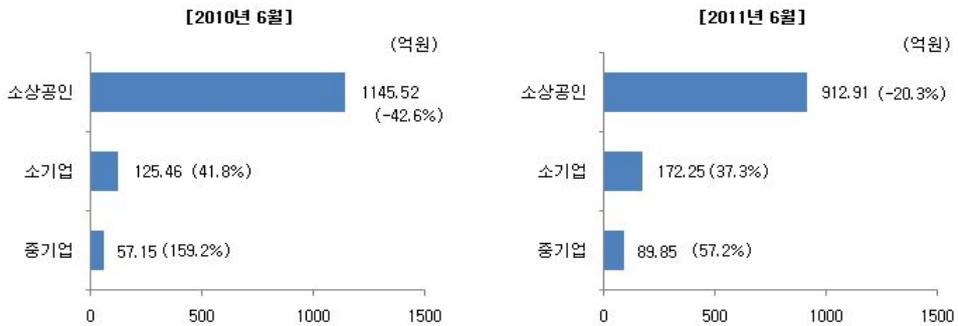
■ 소기업지원 건수 및 금액 비중 증가

-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77.7%, 건수기준 92.4%로 전월 대비 각각 3.9%p, 0.5%p 감소
- 한편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14.7%, 건수기준 5.3%로 전월대비 각각 3.6%p, 0.3%p 증가하였고 중기업 비중도 금액기준으로 7.6%, 건수기준으로는 2.3%로 전월대비 각각 0.3%p, 0.2%p 증가


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 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<그림>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


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 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<그림>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

| 수 · 출 · 입 · 동 · 향 |

서울의 6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

■ 서울의 6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6월 서울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.9% 증가한 48.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22.4% 증가한 107.0억 달러 기록
- 6월 전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.6% 증가한 477.6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27.5% 증가한 449.4억 달러 기록

■ 서울의 6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,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

-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,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630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, 반도체, 편직물, 합성수지 등 순
-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, 석유제품이 900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, 컴퓨터, 항공기 및 부품, 무선통신기기 등 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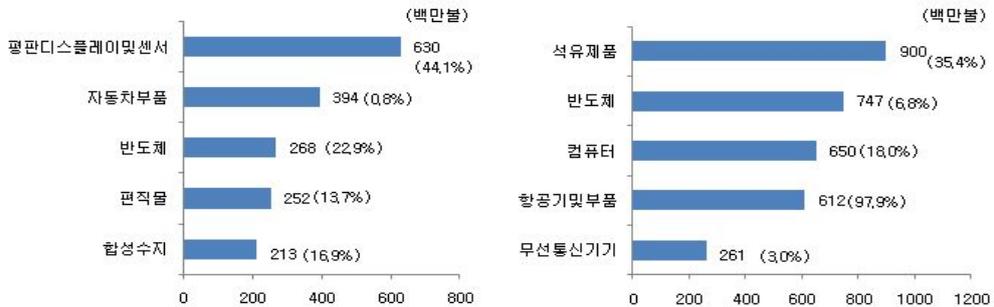
자료 : 무역협회

<그림>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



자료 : 무역협회

〈그림〉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


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자료 : 무역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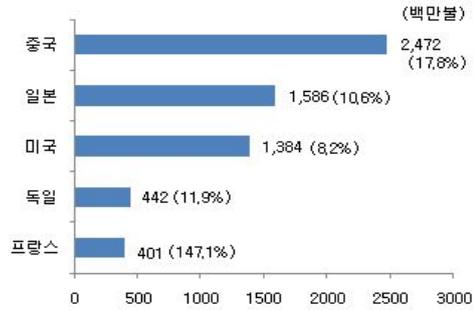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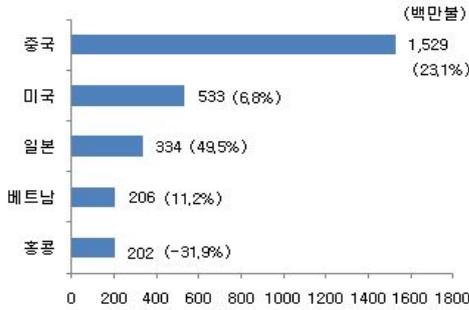
〈그림〉 6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

〈그림〉 6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

■ 서울의 6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

-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,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23.1% 증가한 1,529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, 일본, 베트남, 홍콩 순
- 일본 대한 수출이 전월동월대비 49.5% 증가한 반면 홍콩은 31.9% 감소

-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,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7.8% 증가한 2,472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본, 미국, 독일, 프랑스 순
- 프랑스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47.1%로 크게 증가하여 401백만불 기록


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자료 : 무역협회

<그림> 6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

<그림> 6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

<표> 6월 주요 FTA 대상국별 서울시 수출입 품목

구분	순위	품목명	수출		품목명	수입	
			천불	증가율		천불	증가율
미국		합계	532,845	6.8	합계	1,383,816	8.2
	1	자동차부품	83,762	-20.4	항공기 및 부품	365,453	28.5
	2	무선통신기기	64,613	-15.6	곡식류	76,028	40.5
	3	고무제품	59,853	55.1	육류	66,022	62.9
싱가포르		합계	65,580	19.3	합계	263,592	9
	1	반도체	22,664	66.8	반도체	95,674	-15.6
	2	철강관 및 철강선	3,666	-61.6	컴퓨터	51,817	81.6
	3	컴퓨터	3,386	-38.5	무선통신기기	22,598	65.6
페루		합계	8,665	-30.5	합계	47,530	690.1
	1	철강관 및 철강선	2,261	-34.2	천연가스	40,070	-
	2	합성수지	1,659	78.2	금은 및 백금	4,464	-
	3	합성고무	1,190	21.3	기타 금속광물	1,579	-
칠레		합계	15,460	-3.7	합계	33,822	-2.3
	1	자동차	3,962	244.4	육류	8,039	-5.7
	2	고무제품	1,763	31.7	제지원료	6,567	43.5
	3	건전지 및 축전지	1,522	33.7	정밀화학원료	4,709	77.6
인도		합계	106,750	44.5	합계	355,470	142
	1	합성고무	28,289	204	석유제품	228,951	245.4
	2	자동차부품	16,089	6.5	선박해양구조물	21,500	-
	3	합성수지	9,969	27.7	기초유분	21,456	68.9